



## “기술인연합회, 고문초청간담회 개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박천상)는 지난달 20일 서울 사당동 소재 한정식 사랑채에서 연합회 고문과 연합회 박천상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전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고문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합회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 고문 및 임원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연합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참석 고문들은 “날로 발전하는 연합회에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고 화답하고 향후 연합회의 발전과 환경기술인의 위상강화를 위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 고문들의 의견제시 내용이다.

▶김동민 고문(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매달 발행되는 월간 '환경기술인' 책자를 통해 연합회를 홍보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 맞는 내용 게재로 환경전문매체로의 월간 '환경기술인' 지가 됐으면 한다.

▶노재식 고문(학술원 회원) : 연합회는 이사회를 자주 가져 기술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실천해야 하겠다. 예를들면 해외연수파견을 시켜 정보습득 후에 기술인, 환경산업체 등을 초청해 강의를 하게해 정보공유를 한다든지, 국내에 좋은 최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박창근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회관건립 기금을 연합회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연합회 발전사업중에 부설연구소 설립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환경의 상징적인 1세대인 연합

회 고문들을 적극 활용하여 부설연구소 안에 기술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조직하면 어떨까 한다. 연합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국장이 뒤에서 묵묵히 일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회에 건의하여 사무총장직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윤명조 고문((주)CNG엔테크 회장) : 연합회는 21년을 걸어왔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앞으로 희망을 보여주는 일을 찾아했으면 좋을 듯 싶다. 그 대책으로 해외출장을 보내서 기술을 배워온다든지, 조직을 만들어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국제기술활성단(가칭)을 설립해 운영한다든지, 역대 고문들이나 회장들에게 연합회발전 및 환경기술인의 위상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대책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했으면 한다.

▶이용근 고문(연세대 명예교수) : 연합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마련해 진취적인 일을 계획해서 실천해야 되겠다. 환경기술인의 위상이 없다라는 것은 기술인 스스로가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기술인·연합회는 과학기술협의회, 자원봉사단, 산하기관, 연구소 등에 가입을 해서 기술정보 등을 습득해야 되겠다.

▶한상욱 고문(광운대 환경대학원장) : 현 사회는 환경기술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연합회는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장점을 이용해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기술인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술인들은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고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겠다.㉞